



다음은 2010년 2월에서 2012년 1월까지 2년간 기본과정을 수료한

1기 교육생들의 '나와 교육원 이야기'입니다.

1기 교육생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2011년 12월 작성한 교육 후기 및 인터뷰 내용)

‘대학 가기 전 이런 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1. 교육원 다니기 전에 영재교육원을 다녀본 적이 있나요?

A : 중학교 1~3학년동안 수학영재교육원을 다녔습니다. 중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에 대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해가는 형태였습니다.

2. 그럼 지금은 교육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영재교육원 혹은 학교와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나요?

교육내용적인 면은 처음 입학해서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 내용 중 미래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느낍니다. 학교에서도 미래 사회 글짓기, 그리기 등을 하지만 주위에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대략 짐작해서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원을 통해 미래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또 관심분야에 대한 기술을 찾아보게 하고 그것들을 응용해서 프로젝트화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도 CEO 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커서 아이템 하나 잘 선정해서 CEO가 되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아이템을 무조건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 절차를 통해 접근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꿈은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었고, 내가 지금 대학을 가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한 뒤에 지금 배운 방법을 활용하면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방법적인 면으로는 다른 교육원들은 무조건 가르치고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보다는 활동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즐기고,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교육내용과 교육 과정에 잘 맞는 교육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기 전 이런 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때 처음 영재교육원이라는 곳을 접했을 때 환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은 학원과 비슷했고 그로인해 실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을 다니면서 교육 내용도 색다르다고 생각했고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담이 덜하였습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저는 인공장기 분야의 CEO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상품을 만들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지?” “어떻게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지?” “어떻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포스텍 영재 기업인 교육원에 지원하면서 “저의 꿈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라고 말했고 정말 포스텍 영재 기업인 교육생 1기가 되어 교육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Dream the future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탐색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목록을 제공해 주었고, 기술을 조사하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신기한 기술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술조사 결과와 저의 가치관, 흥미, 재능 등을 고려해 새롭게 바이오에너지라는 관심분야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Discover the future, Develop the future 과정에서 특히 검색법, 미래기술지도 작성법을 배워 바이오에너지의 기술을 좀 더 정확하게 찾고 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을 통해 사업 환경을 조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Deliver the future 과정으로 앞서 배운 것을 토대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과정을 이 글에 모두 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프라인 과정에서의 팀 프로젝트에서는 배운 내용을 확인, 점검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엔 평소엔 배울 수 없었던 지식을 얻기도 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기업가정신, 새롭게 바라보는 법, 맥락을 파악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과 함께 진행된 성격/기질검사, 행동평가, 창의력테스트를 통해 제 자신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고 상담을 통해 부족한 점은 어떻게 바로잡아나갈 것인가

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만 했던 저는 어느덧 스스로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연구원 분들께 메일로 질문을 하고 사업아이템을 고민하며 그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의 자전거를 뒤에서 잡으며 밀어주면 언젠가 아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이끌어가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뒤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제가 스스로 해쳐나갈 수 있는 교육방식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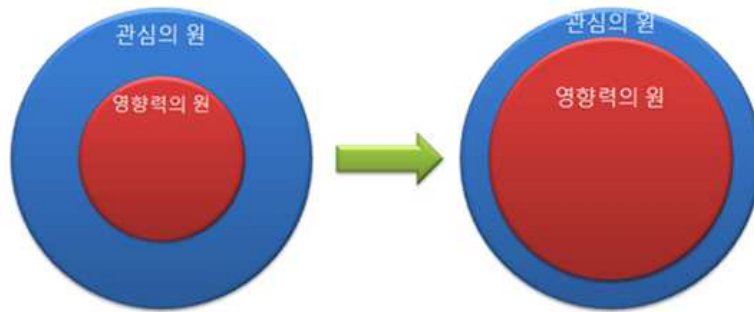
왜 영재기업인인가?



모두가 한번쯤은 꿈을 꾸다. 그렇지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나보다 먼저 갔던 사람들의 노력들은 어떠한지 찾아 공부하고 현실로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 지금 나는 꿈이 목표가 되었고 달려 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현재 포스텍 영재기업인 1기 교육생으로 마지막 집중교육을 앞두고 있다.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2년 전 나의 가능성을 믿고 뽑아주신 모든 면접관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처음 영재기업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자신만의 명함을 갖게 되면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정말로 기업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내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만약 정말로 내가 기업가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내 행동이 곧 기업의 이미지이고 그런 이미지는 곧 기업의 존속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심리적인 선이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타이틀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실제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너무 겉멋만 부리는게 아닐까"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있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행동에서 말하는 것 까지 조금 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게 되었다.

영재기업인 집중교육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정말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친구들은 어떠한 영역에서든 뛰어나고 배울 점이 있다. 단순히 같은 방 안에 있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진다. 영재기업인이 되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타인에게 배웠다면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이다. 교육과정상 우리는 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처음엔 너무나 막연하다. 아무리 그전에 생각이 많았더라도 글로 정리하고 보고서로 내리는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요즘과 같이 입시에 몰입된 현실에서, '나'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을 통해 내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나'에 대한 탄탄한 이해는 어떤 일을 접함에 있어서도 자신감과 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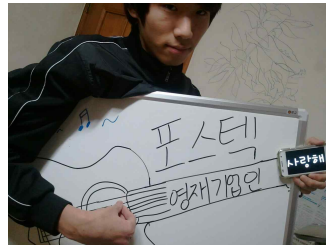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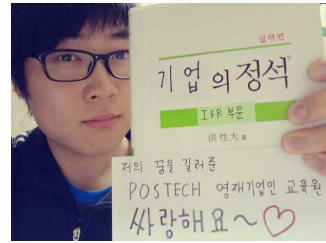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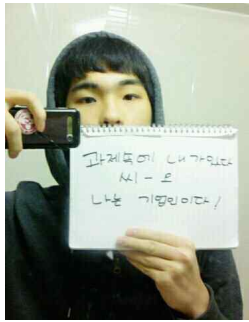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꿈이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기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내가 실제로 관심이 있는 영역을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어 준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실제로 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IT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새로운 IT서비스에 대해 생각해서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IT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관심이 많았던 음악에 대한 관심을 음악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으로 바꾸어 음악과 I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융합적인 사고**는 현재진행중인 트렌드일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당연한 키워드이다. 이러한 영향력의 원의 확대는 항상 깨어 있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배우려는 자세는 영재기업인 모두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자세**다. 재미있는 사실은 영재기업인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내 친구가 그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영재기업인에 소속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네트워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서로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지대의 역할도 같이한다.

영재기업인 교육과정은 강요하지 않는다.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한다. 관심 분야를 '**정하라**'고 하지 **정해진 것 중에 고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영재기업인 교육과정에서 정답이란 없다. **내가 생각하고 깨달은 내용들이 모두 정답인 것이다.** 입시라는 정해진 틀 속에 갇혀있는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이래서 영재기업인이다. 방학 중의 집중교육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프로젝트로 진행해보는 물론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 이때 느낄 수 있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은 역시나 정말로 소중한 경험 중 하나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리**'가 필요하다. 학교 생활과 과제의 병행. 영재기업인은 시간관리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시간을 관리하려는 경험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실패하여도 피드백을 통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영재기업인 교육과정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 영재기업인 친구들을 만나 배운 것들 모든 것은 나에게 소중한 고등학교 시절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입시의 관점에서 떠나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배움들을 가져다준 영재기업인 교육원에 정말로 무한하고 격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여기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는 영재기업인이다



'내 청소년기의 확실한 Turning point가 되었다'

<종합적인 의견>

- **교육원에 다니면서 자신이 변화한 점** : 매사에 '영재기업인'이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았으며 선생님들, 연구원님들, 심지어 동생들에게까지도 학교생활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큰 규모의 행사에도 참여를 하며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교육원을 통해 배운 점** : 크고 다양한 경험에 시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의 의사소통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등 교육원의 커리큘럼에 알맞은 수업 이상의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 **교육원 들어오기 전과 지금의 나의 비교** : 포스텍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원은 제가 제 자신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교육원에 들어온 후 제 자신의 길을 확실히 찾았고 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원에 들어온 이후로 저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육원 소속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이 변화하였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 값진 경험이자 기회였으며 **제 청소년기의 확실한 Turning point가 되었습니다.**

한 줄 요약 : 포스텍 영재기업인 교육원은 이동기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대학 진학(조기진학) 이후에도 교육원을 계속 다녔던 이유는 교육원 친구들의 특별함과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Q1. 교육원과 조기 진학으로 인한 대학 생활을 병행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A :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원과 대학생활 모두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Q2. 결국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육원을 계속 다니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성격상 지금까지 한 것을 그만 두기보다 끝까지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교육원에서 만난 친구들의 특별함과 교육원의 교육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것이 컸습니다. 교육원 친구들은 일반 수/과학 영재교육에서 만난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로지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만 하고, 학원을 다니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 친구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함께 정보, 생명, 컴퓨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이러한 친구들은 다른 영재교육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교육 내용 또한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수업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방식이 좋았습니다. 또한 다른 교육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교육원 소속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교육원 선생님들과의 교감,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많은 힘을 써주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Q3. 교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수업 내용이 있나요?

A : 1년차 교육은 전체 교육과정의 가장 아래 단계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다면, 2차년도 1학기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배워서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파괴적 혁신 검토, 사업기회분석 등 실제 경영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실제로 할 법한 것들을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Q4.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와 달리 교육원에서는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나요?

A :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런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와서도 아직 1학년이라 전공 지식을 배우지 않는 상황이고 지난 2년 동안 앞으로 배울 것들 혹은 아주 똑같은 내용을 배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학업을 하는데 흥미도 많이 생겼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